

首都圈 南部 非都市地域의 工業發達과 企業體 特性에 關한 研究*

— 華城郡을 事例로 —

金 恩 經**

《차 례》	
1. 서 론	(3) 화성군공업 업종구조변화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4) 읍면별 공업비중변화
(2) 연구지역	4. 화성군 기업체의 특성
(3) 연구방법 및 자료	(1) 기업형태별 일반적 특성
2. 수도권 지역의 공업 발달	(2) 입지요인과 입지평가
3. 화성군의 공업 발달과 현황	(3) 기업의 입지변화
(1) 수도권 공업에서 화성군이 차지하는 위치	(4) 지역적 연계
(2) 화성군 공업 업체 및 종업원 증가경향	(5) 기술개발활동
	5. 결 론

1. 서 론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1960년 이후 급속한 경제성장과 경제개발계획의 추진과정에서 수도권지역은 산업기반시설과 사회간접자본시설이 축적되고 급속한 인구집중에 의해 대도시를 형성한 결과 우리나라 工業發展의 核心地域이 되었다.¹⁾ 그러나 수도권(특히 서울과 인접 공업도시들)으로의 지나친 공업집중현상은 인구집중현상과 결합하여 여러가지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켰다.²⁾

그동안 지방개발법, 개발제한구역설정, 공업

배치법, 수도권정비계획, 제 1·2차 국토종합개발계획 등 정부의 문제해결을 위한 부단한 정책³⁾ 시행에도 불구하고 首都圈의 工業集中現象은 크게 누그러들지 않고 오히려 서울 주변지역으로 工業地域의 空間的 擴大를 가져왔다.⁴⁾

수도권공업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은 최근에 급격한 공업성장을 경험하고 있는 수도권 비도시 지역에 대하여서는 부분적으로 다루고 있을 뿐이며, 수도권의 공업성장 결과 비도시지역에 입지하게 된 기업체가 어떠한 특성을 지니는가에 대해서는 자세히 밝히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도권공업의 立地變動 결과 급속한 공업성장을 경험하고 있는 首都圈

* 本 論文은 筆者의 碩士學位論文임. 指導敎授이신 朴杉沃 先生님께 감사드립니다.

** 서울대학교 大學院 地理學科 碩士課程卒業

1) 김종기, 황일청, 1987, 지방공업의 특성과 육성정책, 한국개발연구원, p.47.

2) 임한수, 이성복, 1985, "수도권공업지대의 형성과정과 구조적 특성에 관한 연구", 응용지리, 제8호 p.19.

3) 부산은행, 1986, 기업체본사 지방소재지로의 이전대책, pp.54-59.

Choe, S.C. and B.N., Song, 1984, "An Evaluation of Industrial Policies for Urban Decentration in Seoul Region," 환경논총 제14권, pp.73-116.

4) Lee, Jeong-Sik, 1988, "Regional Development Policies in Korea: Retrospects and Prospects", The Korea Spatial Planning Review, Vol. 10, pp.79-99.

南部 非都市地域 중 華城郡을 사례연구지역으로 하여 화성군의 공업발달과정과 현황을 살펴본다. 그리고 화성군에 입지하게 된 기업체의 기업형태에 따른 특성, 입지요인과 입지평가, 이진, 종업원·원료구입·제품판매·정보 및 기술서비스·하청 등의 지역연계, 기술개발활동 등의 특성을 분석하여 華城郡 工業化의 特性을 밝히려 한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수도권 남부 비도시지역의 공업화를 이해하는데 일조하고자 한다.

(2) 연구지역

본 논문의 사례연구지역인 화성군은 경기도의 남서부에 위치하는 군으로, 북으로는 안산시와 시흥군, 동으로 수원시 및 용인군에 접하고 남으로 평택군과 인접하며, 서쪽은 황해에 면한다. (그림 1)

경부고속도로와 경부국도, 경부선 철도가 군의 동쪽을 통과하고 있어 교통이 편리한 편이며 서울·인천 등 대도시와 인접하고 있어서 이들 대도시로부터의 공업이전이나 원료구입, 제품판매가 용이하다.

화성군에는 계획적공업단지로 鄉南製藥團地가 있지만 현재 10여개 업체만 가동하고 있어 대부분의 업체는 자유입지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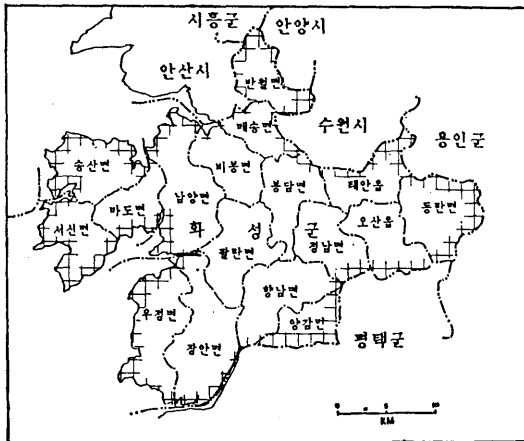


그림 1. 사례연구지역 : 화성군

(3) 연구방법 및 자료

본 연구에서는 종업원수와 업체수를 지표로 하여 수도권과 화성군의 공업발달 및 기업체 특성을 살펴보았다. 공업입지의 분석을 위한 측정지표의 선정에는 학자간에 견해를 달리하고 있지만,⁵⁾ 자료의 구득이 용이하고 시기별·지역별로 비교하는데 유용한 종업원수와 업체수를 지표로 사용하였다. 업종구조는 경제기획원 '標準産業分類(SIC)' 中分類의 9개부문을 기준으로 하여 분석하였다.

수도권지역과 화성군의 공업발달과 현황에 관한 내용은 광공업조사보고서와 총사업체노동자 실태조사 보고서를 자료로 하여 분석하였다. 수도권의 공업성장이 남부 비도시지역으로 확대되었음을 보이기 위해 수도권지역을 서울, 시부지역, 북부·남부·동부 비도시지역으로 구분하여 공업발달경향을 살펴보았다. 지역별 상대적 증감은 變移割當分析(shift share analysis)을 통해서 구한 수치를 사용하였다. 화성군의 공업발달은 화성군이 수도권에서 차지하는 비중변화, 업종별구조변화, 읍·면 단위별 공업분포변화등을 도표화함으로써 살펴보았다.

화성군에 입지하고 있는 기업체의 특성은 설문과 면담에 의한 設問紙를 중심자료로, 부분적으로는 전국기업체총람과 수원기업체총람을 자료로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설문자료는 수원기업체총람(1987년판)에 수록되어 있는 570개 업체중 종업원수가 10인 이상인 515개 업체를 대상으로한 우편설문과 기업체를 방문한 직접면담을 통해 구하였다. 설문조사 기간은 1988년 8월부터 10월까지였으며, 조사대상 515개 업체중 105개 업체에서 설문지를 회수하였다.

2. 수도권의 공업발달

1970년대 중반 이후 수도권의 공업이 어느 지역을 중심으로, 어떠한 요인에 의해 발달해왔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수도권을 행정구역에 따라

5) Patni, R.L., 1968, "A New Method of Measuring Locational Changes in a Manufacturing Industry", *Economic Geography*, Vol. 44, p.216.

서울, 市部地域, 非都市地域으로 구분한 다음, 비도시지역을 서울을 중심으로 北部·東部·南部 非都市地域으로 세분하였다. (표 1, 그림 2)

수도권을 5개의 지역으로 구분한 다음 각 지역별로 어떤 요인에 의해 공업이 발달하였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종업원수를 사용하여 변이할당분석한 결과를 표에 정리하였다.

수도권 각 지역별 상대적 공업증감을 변이할당분석에 의하여 살펴본 결과, 서울은 1976년에서 1981년, 1981년에서 1986년간에 모두 상대적인 감소를 하였다. 서울이 상대적으로 공업감소를 보이는 것은 지역경쟁효과보다는 산업구조효과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의 공업업종구조에서 섬유공업 등의 경공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市部地域의 경우를 보면 1976~1981년, 1981~1986년 사이에 계속적으로 상대적 증가를 보이는 하지만 1981~1986년 사이에는 증가의 폭이 상당히 줄어들었음을 볼 수 있다. 이 기간 동안 상대적 증가를 결정짓는 요인이 무엇인지 살펴보면 산업구조효과 때문에 시부지역이 상대적으로 증가하였지 지역경쟁효과 때문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경쟁효과는 1981~1986년 사이에 상대적인 감소를 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보아 1880년대에 들어와서 서울에 인

표 2. 수도권 공업지역 구분

지역	해당시군
서울	서울특별시
시부지역	인천·수원·부천·의정부·성남·안양시
비도시* 북부	강화·김포·파주·고양·연천·포천군
동부	양주·가평·양평·광주·이천·여주군
남부	시흥·화성·용인·평택·안성군

* 용진군은 북부·동부·남부 비도시지역에 포함시키지 않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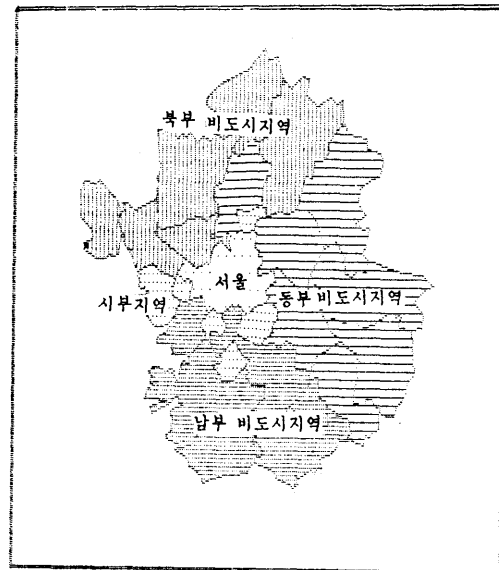


그림 2. 수도권 공업지역 구분도

표 2. 수도권 각 지역별 상대적 공업증감(변이할당분석에 의하여)

(단위 : 종업원수)

지역	기간	1976~1981			1981~1986		
		TS	DS	PS	TS	DS	PS
서울		-153,673	-153,139	-534	-52,188	-54,242	2,054
시부지역		26,648	25,893	755	1,490	-2,364	3,854
비도시지역	북부	2,674	3,017	-343	13,963	14,275	-312
	동부	19,157	18,827	330	12,707	13,115	-408
	남부	31,991	30,960	1,031	59,127	55,451	3,676
	소계*	53,749	52,721	1,028	85,905	82,949	2,956
수도권 전체		-73,276	-74,525	1,249	35,207	26,343	8,864

* 용진군을 포함.

주 : TS=Total Shift(총 변동량)

DS=Differential Shift(산업구조효과)

PS=Proportional Shift(지역경쟁효과)

자료 : 경제기획원, 인구조사보고서, 1975, 1980, 1985년.

노동부, 총사업체 노동자실태조사보고서, 각년호의 data를 변이할당분석

접한 시부지역의 공업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非都市地域의 경우를 보면, 1976~1981년 1981~1986년 사이에 모두 상대적증가를 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수도권 지역의 공업성장이 1970년대 중반 이후 서울과 인접한 도시 중심에서 벗어나 그 주변의 비도시지역으로 확산되었음을 의미한다. 1970년대 중반 이후 수도권 비도시지역이 공업성장을 주도하게 된 요인이 무엇인지 살펴보면 산업구조효과 보다는 지역경쟁효과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도권 비도시지역이 대소비시장인 서울주변에 있어서 입지적 잇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수도권 비도시지역을 북부·동부·남부 비도시지역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南部非都市地域이 수도권 비도시지역의 공업발달을 주도하였음을 알 수 있다. 수도권 남부 비도시지역은 1976~1981년, 1981~1986년 사이에 산업구조효과와 지역경쟁효과가 모두 상대적으로 증가하였던 것으로 나타나 북부나 동부비도시지역과 차이를 보인다. 이와 같이 수도권 남부 비도시지역이 수도권 비도시지역의 공업발달을 주도하게 된 것은 서울의 인구집중을 완화하기 위한 수도권 공업분산정책의 시행 결과로 볼 수 있으며,⁶⁾ 또한 북부나 동부지역보다 유리한 교통조건을 갖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3장과 4장에서는 1970년대 중반 이후 급속한 공업성장을 보이고 있는 수도권 남부 비도시지역 공업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이 지역에 해당하는 화성군을 사례로 하여 공업발달과 기업체 특성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3. 화성군의 공업발달과 현황

(1) 수도권공업에서 화성군이 차지하는 위치

화성군은 1970년 이후 지속적인 공업증가를 보였다. 수도권에서 화성군이 차지하는 비중을 업체와 종업원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모두 상당히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표 3) 그러나 종업원의 비중이 업체비중보다는 높게 나타나 화성

군의 기업체규모가 수도권전체의 평균기업체규모보다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화성군공업 업체 및 종업원 증가경향

화성군의 공업발달을 1976년에서 1987년까지 정리한 것이 표 4이다. 표를 보면 화성군의 공업은 1976년 이후 계속적으로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업체당 종업원수를 보면 계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1980년 이전에는 대기업이 화성군에 많이 입지하였는데 반해, 1980년대에는 대기업이 화성군에 입지하지는 않고 오히려 입지하고 있던 대기업이 타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3) 화성군공업 업종구조변화

화성군공업의 업종구조를 정리한 것이 표 5이다. 화성군공업의 업종구조를 산업중분류별로 살펴보면 섬유공업이 급격히 감소한 반면, 금속

표 3. 화성군의 지위(수도권에 대한 비중)

	1971년	1976년	1981년	1986년	1987년
업체수	18 (0.3)	68 (0.6)	152 (0.8)	367 (1.4)	499 (1.6)
종업원수	1,897 (0.7)	9,037 (1.2)	21,978 (2.3)	35,331 (2.8)	44,499 (3.0)

자료: 노동부, 총사업체노동자실태조사보고서, 각 연도

표 4. 화성군공업 업체 및 종업원 증가추이

연 도	업 체 수	종업원수	업 체 당 종업원수
1976	68	9,037	132.9
1977	95	12,202	128.4
1978	98	15,923	162.5
1979	160	25,452	159.1
1980	170	23,186	136.4
1981	152	21,978	144.6
1982	228	25,187	110.5
1984	257	26,906	104.7
1985	321	30,991	96.5
1986	367	35,331	96.3
1987	499	44,469	89.1

자료: 노동부, 총사업체 노동자실태조사보고서, 각 연도.

6) 형기주, 1987, "수도권 내부의 공업입지동태", 동국지리, 제 7 호, p.6.

표 5. 화성군공업 업종구조 변화

연도	공업	경공업 (%)					소계	중화학공업 (%)				
		SIC31	SIC32	SIC33	SIC34	SIC39		SIC35	SIC36	SIC37	SIC38	소계
종업원	1976	3.6	30.5	0.5	15.5	0.3	50.4	8.5	4.2	0.2	36.7	49.6
	1981	5.3	22.0	0.6	8.0	0.7	36.7	8.9	11.1	1.9	41.5	63.3
	1986	2.7	12.5	0.7	6.1	1.5	23.5	12.7	11.0	2.5	50.3	76.5
업체	1976	17.6	13.2	4.4	13.2	1.5	50.0	13.2	11.8	1.5	23.5	50.0
	1981	11.8	13.2	3.3	8.6	2.6	39.5	19.1	13.2	3.9	24.3	60.5
	1986	6.5	9.3	2.7	7.6	3.0	29.2	24.8	6.0	2.7	37.3	70.8

자료 : 노동부, 총사업체 노동자실태조사보고서, 각년호.

표 6. 화성군 각 읍면별 업체 및 종업원비율(화성군 전체에 대한 비율)

읍면	업체 (%)				종업원 (%)			
	1975	1980	1985	1987	1975	1980	1985	1987
오산읍	35.0	29.7	23.6	42.4	56.5	40.8	26.1	26.4
태안읍	26.7	22.7	25.4	26.5	15.2	22.7	33.6	35.0
동탄읍	6.7	16.6	11.0	10.7	9.4	10.5	10.3	10.8
반월면	11.7	13.1	13.6	4.4	6.2	15.1	11.1	4.6
매송면	5.0	3.8	1.2	1.6	0.5	0.7	0.4	0.5
비봉면	1.7	0.6	0.2	0.2	3.6	1.1	0.6	0.4
남양면	1.7	—	0.4	0.7	0.0	—	0.0	0.3
마도면	—	—	0.2	0.2	—	—	0.1	0.0
송산면	1.7	0.9	1.0	0.7	1.0	0.2	0.2	0.1
서신면	—	—	—	—	—	—	—	—
봉담면	6.7	5.2	12.2	13.9	6.5	4.5	10.4	10.6
팔탄면	—	0.9	1.2	2.3	—	0.5	0.8	1.7
향남면	1.7	1.2	2.0	3.0	0.7	4.7	1.6	1.9
양감면	1.7	0.6	2.4	3.0	0.2	0.2	0.8	1.5
장안면	—	0.3	0.4	1.1	—	0.1	0.2	0.6
우정면	—	—	0.2	0.4	—	—	0.1	0.1
정남면	—	4.7	4.9	7.4	—	3.1	3.4	5.6

자료 : 수원상공회의소, 수원기업체총람, 각년호.

기계·장비제조업이 상당히 증가하였음을 볼 수 있다.

공업을 경공업과 중화학공업으로 나누어 살펴 보면 화성군의 공업에 있어 경공업은 감소하였고 중화학공업은 증가한 경향을 보인다.

(4) 읍·면별 공업비중 변화

화성군 각 읍·면별로 업체와 종업원의 구성 비율 연도별로 비교해 보면 몇가지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표 6) 먼저 화성군의 공업이 몇개의 읍·면을 중심으로 발달해 온 것을 볼 수 있

다. 공업이 집중적으로 발달한 지역은 오산읍과 태안읍, 동탄면, 봉담면, 정남면 등이다. 이들 읍·면은 모두 경부고속도로, 경부선에 인접한 읍·면들이다. 이로보아 화성군의 공업발달은 교통이 편리한 읍·면을 중심으로 발달해왔음을 알 수 있다. 둘째, 공업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 중에서 오산읍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감소한 반면, 태안읍의 비중이 많이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태안읍이 오산읍보다 서울과 수원 등의 대도시에 인접하여 이런 경향을 보인다고 볼 수 있다. 반월면의 비중도 최근에 급격히 감소하였

는데 이는 반월면에 입주하고 있던 업체중에서 상당수가 半月工業團地로 移轉한 때문이다.

4. 화성군 기업체의 특성

(1) 기업형태별 일반적 특성

화성군의 공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업체의 형태를 먼저 파악할 필요가 있다. 본 절에서는 화성군 기업체의 형태를 공장수에 따라 單一工場企業과 多工場企業으로 본사의 분리여부에 따라 本社分離企業과 本社非分離企業으로 나누어 살펴 보았다.

1) 단일공장기업과 다공장기업

1986년 현재 화성군 기업체중 단일공장기업은 전체(401개업체)의 95.5%(383개), 다공장기업은 4.5%(18개)를 차지하였다. 다공장기업이 단일공장기업보다는 종업원규모가 크고 설립년도가 오래되었다.

2) 본사분리기업과 비분리기업

1986년 현재 화성군에 입지하고 있는 기업체를 본사가 화성군에 있는 기업과 화성군외에 있는 기업체로 나누어서 비교해 본 것이 표 7과 8이다. 본사분리기업이 본사비분리기업보다 다공

표 7. 본사분리기업과 본사비분리기업의 기업형태

기본형태	본사분리기업	본사비분리기업	계 (%)
단일공장기업	86(85.1)	15(14.9)	101(100.0)
다공장기업	297(99.0)	3(1.0)	300(100.0)

자료 : 경제기획원, 전국기업체총람, 1987.

표 8. 본사분리기업과 본사비분리기업의 종업원규모

구 모	본사분리기업	본사비분리기업	계 (%)
소규모기업	49(48.5)	242(80.7)	291(72.6)
중규모기업	40(39.6)	48(16.0)	88(21.9)
대규모기업	12(11.8)	10(3.3)	22(5.5)

자료 : 경제기획원, 전국기업체총람, 1987.

장기업의 비율이 높았으며 종업원규모가 컸다.

1980년에 화성군에 입지하고 있던 기업체중 본사와 공장이 분리된 기업은 총 261개업체중 29개로서 11.1%에 불과하였다. 본사가 분리된 기업체중 본사를 서울에 두고 있는 기업이 25개로 본사분리기업 전체의 86.2%에 해당한다.⁷⁾ 그러나 1986년에는 본사분리기업이 총 404개업체중 101개업체로 비율이 25.2%로 상당히 높아졌음을 볼 수 있다.⁸⁾ 본사분리기업중 본사를 서울에 두고 있는 비율은 95%로 더욱 높아졌다. 이렇게 본사분리기업의 비율이 증가한 이유는 타지역 특히 서울에서 화성군으로 이전한 기업중 상당수의 업체가 본사는 기존입지지역에 그대로 두고 공장만을 이전한 때문이다. 또한 화성군에 입지하고 기업체중 본사를 화성군에서 타지역(주로 서울)으로 옮긴 기업체도 많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한편 1986년 화성군에 입지하고 있는 기업중 지사나 사무소를 화성군 이외의 타지역에 두고 있는 비율이 16.7% (전체 401개업체중 67개 업체)로 높게 나타났다.⁹⁾ 1986년 현재 본사나 지사를 화성군 이외의 타지역에 두고 있는 기업의 비율은 38.7%(전체 401개업체중 157개업체)였다. 서울에 본사나 지사를 둔 기업은 37.9%(전체 401개업체중 152개업체)체로 본사나 지사를 화성군외에 둔 기업의 거의 대부분이 서울에 집중되어 있음을 보여 화성군의 공업화가 서울의 공업분산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았으며, 화성군에 입지하고 있는 기업이 서울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화성군에 입지하고 있는 기업중 분공장이 차지하는 비율은 별로 높지는 않았지만, 본사를 화성군 이외지역에 두고 있는 기업의 비율은 높았으며 그 비율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즉 화성군을 비롯한 수도권 비도시지역의 공업화는 서울로부터의 공

7) 전국기업체총람 1982/83년판에 수록되어 있는 기업중 본사분리기업의 비율은 9.2%, 본사분리기업중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기업의 비율은 약 84%였다. 이것으로 보아 1980년 화성군에 입지한 기업중 본사분리기업의 비율은 전국평균보다 높다고 할 수 있다.

8) 전국기업체총람 1987년판에 수록되어 있는 기업중 본사분리기업의 비율은 14.7%, 본사분리기업중본사를 서울에 두고 있는 비율은 77.2%였다. 1986년의 경우에도 화성군의 본사분리기업의 비율은 전국평균보다 높았으며, 전국평균과의 비율차이는 더욱 커졌다.

9) 1987년판 전국기업체총람에 수록되어 있는 기업체중 지사를 두고 있는 기업의 비율은 약 10%였다.

업분산과 관련이 있고, 이 과정에서 空間的 分業 (Spatial Division of Labor)이 촉진되었으며 그 결과 본사분리기업의 비중이 높아지게 된 것이다.¹⁰⁾ 화성군에서 본사분리기업이 전체 기업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계속적으로 증가하여왔고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이라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화성군의 기업체 특성을 분석하는데 있어 본사분리기업과 본사비분리기업과의 비교를 통한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본사분리기업과 본사비분리기업과의 비교를 통하여 화성군 기업체의 특성을 분석하는 것은 이들 기업간에 차이가 존재할 것이라 가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본사분리기업은 본사비분리기업보다 화성군에 대한 연계가 낮은 반면, 본사가 입지한 서울과의 연계가 강할 것이라 가정할 수 있다.¹¹⁾

다음절에서는 화성군에 입지하고 있는 기업체 중 설문에 응답한 기업을 대상으로 입지, 이전, 지역연계, 기술 등에 관한 사항을 분석하므로써 화성군의 기업체 특성을 파악하려 한다. 화성군의 기업체 특성을 파악하는데 있어 앞에서 논의한 기업체의 형태적 측면을 고려한다면 보다 명

료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기본적으로 본사분리기업과 본사비분리기업간의 비교를 통한 연구를 하였다.

설문에 응답한 업체를 대상으로 본사와 공장이 분리된 업체의 비율을 살펴보면 105개업체중 18개로 17.4%였다. 이들 18개의 본사분리기업의 본사는 모두 서울에 있다.

(2) 입지요인과 입지평가

1) 화성군에 입지한 이유

화성군에 입지하고 있는 기업체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공장을 화성군에 입지시킨 이유를 살펴보면 가장 중요한 입지요인은 서울과의 인접성이었다. (표 9) 이 요인을 가장 중요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화성군에 입지하고 있는 기업체는 서울과 깊은 관련성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 요인외에 연관업체와의 인접성, 수송조건의 편리, 제품시장에의 근접 등 Situation요인을 중요한 입지요인으로 들고 있다 또한 지가저렴에 따른 공장부지 확보용이, 남녀 생산직 노동력 확보용이, 하부구조의 용이 등 Site적 요인도 중요시하고 있다.

표 9. 공장이 화성군에 입지한 이유

입 지 요 인	본사분리	비분리기업	계 (%)
서울과의 인접성	9(50.0)	53(67.1)	62(63.9)
지가가 저렴하여 공장부지 확보용이	9(50.0)	39(49.4)	48(49.5)
연관업체와의 인접성	6(33.3)	21(26.6)	27(27.8)
수송조건(철도, 고속도로, 항만)의 편리	4(22.2)	22(27.8)	26(26.8)
제품판매시장에서의 근접	5(27.8)	21(26.6)	26(26.8)
남, 여 생산직 노동력 확보용이	4(22.2)	18(22.8)	22(22.7)
수도권공장분산정책(정부의 지원, 권고)	8(44.4)	11(13.9)	18(20.7)
하부구조(전력, 용수)의 양호	1(5.6)	9(11.4)	10(10.3)
사업가의 개인적 선호	1(5.6)	8(10.1)	9(9.3)
원료구득용이	1(5.6)	4(5.1)	5(5.2)
기술및 관련 연구기관의 집적	—	3(3.8)	3(3.1)
정보, 통신망의 발달	—	3(3.8)	3(3.1)
전문 기술노동력 확보용이	—	3(3.8)	3(3.1)
기 타	—	3(3.8)	3(3.1)
총 응답업체수 (%)	18(100.0%)	79(100.0%)	97(100.0%)

자료 : 설문조사

10) Park, S.O., 1987, "Recent Development and Linkage of High Technology Industries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지역연구, 제 3 호, p.25.

11) 박삼욱, 1985, "한국 대도시지역의 공업입지정책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제 2 권, 제 2 호, p.216.

입지요인을 본사분리기업과 본사비분리기업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이들 간에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본사분리기업은 수도권공장분산정책에 따른 정부의 지원이나 이전권고를 화성군에 입지한 주요요인이라고 응답하였는데 이로 보아 수도권공업분산정책이 본사분리기업의 경우에 있어 화성군에 공장을 입지하는데 영향을 많이 주었음을 알 수 있다. 본사비분리기업의 경우에는 서울과의 인접성 때문에 화성군에 입지하였다고 응답한 비율이 본사분리기업보다 높게 나타났다는 것은 본사분리기업의 경우 본사를 서울에 두고 있기 때문에 서울과의 인접성을 본사비분리기업만큼 중시하지 않은 반면, 화성군에 본사와 공장을 두고 있는 본사비분리기업의 경우 제품판매, 원료구입, 행정기관과의 접촉등의 여러가지 이유 때문에 서울에 가까이 입지할 필요가 있어 화성군에 입지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2) 화성군 입지평가 : 서울과의 비교

화성군이 서울에 비해 유리한 것은 지가저렴, 공장부지확보, 하부구조, 세제혜택 등이었으며, 서울보다 불리한 것은 전문고급인력공급, 원자재구입, 통신시설, 금융, 제품판매, 관련행정기관과의 관계 등이었다. (표 10) 이로 보아 화성군에 입지한 업체는 전반적으로 화성군이 서울에 비하여 공업입지로서는 불리하지만, 서울에의 공장입지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지가저렴

에 따른 공장부지의 확보등을 고려하여 화성군에 입지한 것을 알 수 있다.

본사분리기업과 본사비분리기업의 입지평가에 있어서 차이는 거의 없었다.

(3) 기업의 입지변화

화성군의 공업발달에 있어서 이전은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현재 화성군에 입지하고 있는 기업체 가운데 본사나 공장을 이전을 한 경험이 있는 기업체는 전체 응답업체 105개 중에서 58개 (55.2%)로 나타나 이전에 의하여 화성군의 공장이 어느정도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이전기업의 창설지를 보면 서울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음이 주목되는데, 이는 화성군에 입지하고 있는 기업체의 다수가 서울에서 창설한 후 화성군으로 이전한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서울 다음으로 화성군으로 이전한 비율이 높은 지역은 수원이었다. 수원은 화성군과 인접하고 있는 시이기 때문에 공업용지의 확보와 관련하여 화성군으로 공장을 많이 이전한 것으로 보인다.

이전업체가 화성군으로 공장을 이전한 이유를 살펴보면 표 11과 같다.

화성군으로 공장을 이전한 가장 큰 이유는 보다 넓은 부지확보, 생산량 증대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다.¹²⁾ 정부나 관련기관의 조치(이전명

표 10. 서울에 입지한 등업종의 타공장과의 비교

	유 리	불 리	별 차이 없음	응답업체수(%)
공장부지 확보	64(75.3)	3(3.5)	18(21.2)	85(100.0)
지가저렴	64(80.0)	3(3.8)	13(16.3)	80(100.0)
생산직 노동력공급	26(33.3)	32(41.0)	20(25.6)	78(100.0)
전문고급인력공급	—	47(61.8)	29(38.2)	76(100.0)
하부구조(전력, 용수)	30(39.5)	7(9.2)	39(51.3)	76(100.0)
통신시설	8(10.3)	28(35.9)	42(53.8)	78(100.0)
교통조건	10(12.3)	44(54.3)	27(33.3)	81(100.0)
원자재구입	10(12.7)	34(43.0)	35(44.3)	79(100.0)
제품판매	14(18.2)	25(32.5)	38(49.4)	77(100.0)
연관산업과의 관계	17(23.0)	16(21.6)	41(55.4)	74(100.0)
관련 행정기관과의 관	7(9.3)	17(22.7)	51(68.0)	75(100.0)
세제혜택	15(20.0)	4(5.3)	56(74.7)	75(100.0)
금 용	8(10.5)	25(32.9)	43(56.6)	76(100.0)

자료 : 설문조사

12) 일반적으로 생산시설의 확장이 요청되지만 기존의 위치에서는 공장부지의 확보난 등으로 인하여 실현이

령)에 의해서 이전한 기업체는 13.5%로 나타나 비교적 낮은 비율을 나타내는데, 이는 정부의 정책적 조치에 의해 이전한 기업체의 다수가 반월공단으로 이전하였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향후 화성군의 공업변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타 지역으로 이전할 의사와 분공장설립 등에 관하여 설문하였다. 타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할 의사가 있는 기업체는 총 응답업체 91개 중에서 18개 (20.0%)업체였다. 이전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부지확보로 이는 지가가 상승하고 절대공업용지가 부족한 까닭으로 화성군에서 공장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리고 이들 기업이 이전하려는 대상지역은 수도권지역내가 많기는 하지만 충청도로의 이전을 고려하는 기업이 많았다. 분공장의 설립을 고려하고 있는 기업은 응답업체의 22.6%였으며 분공장설립지로는 이전하려는 지역보다 충청도의 농공지구를 생각하고 있는 업체가 많았다.

앞으로 수도권지역에서 공업부지확보는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어 금융지원, 세제지원 등을 통하여 공업의 지방분산을 목적으로 하는 농공지구 특히 수도권과 인접한 충청도의 농공지구에 공장을 이전하고, 분공장을 설립하려는 기업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본사를 서울로 이전하려는 기업은 있으나 서울에 있는 본사를 화성군으로 옮기려는 기업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 화성군 기업체의 본사와 공장분리경향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4) 지역적 연계

본 연구에서는 화성군에 입지하고 있는 기업이 수도권 특히 서울과 어느정도 연계를 맺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종업원, 원료구입, 제품판매, 정보 기술서비스, 하청연계를 분석하였다.

1) 종업원연계

화성군에 입지하고 있는 기업체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의 거주지를 살펴보면 생산직 종업원의 경우 화성군에 거주하고 있는 비율이 약 67%로 높게 나타나지만, 계장급이상의 종업원의 경우 서울과 인접한 시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종업원들의 출신지역을 살펴보면 생산직 종업원과 계장급이상 종업원 모두 수도권이외지역 출신이 많은데, 이는 많은 종업원들이 수도권지역의 고용기회를 좇아 수도권지역으로 이동해온 결과이다.

2) 원료연계

기술적으로 복잡하고 정교한 부품 및 원자재와 표준화된 부품 및 원자재를 구입하는 지역은 다소 차이가 난다. 기술적으로 복잡하고 정교한 부품 및 원자재의 경우 서울에서 구입하는 비율이 높고 화성군 자체에서 구입하는 비율이 낮았다. 반면 단순하고 표준화된 부품 및 원자재의 경우 이와 반대의 경향을 보인다. 이는 정교한 부품 및 원자재의 경우 화성군 자체에서 구입하기보다는 서울에서 구입하는 것이 보다 용이하기 때문이다. 본사분리기업과 본사비분리기업의

표 11. 화성군으로 공장을 이전한 이유

이 전 이 유	본사분리기업	본사비분리기업	계 (%)
보다 넓은 부지의 확보를 위해	5(45.5)	23(56.1)	28(53.8)
생산량 증대에 대처하기 위해	7(63.6)	20(48.8)	27(51.9)
관련공장(기업)에의 근접필요성	4(36.4)	8(19.5)	12(23.1)
구 입지에서의 임대계약 만료	1(9.1)	8(19.5)	9(17.3)
정부나 관련기관의 조치(이전명령)	1(9.1)	6(14.6)	7(13.5)
노동력부족에 대처하기위해	1(9.1)	2(4.9)	3(5.8)
기 타	1(9.1)	1(2.4)	2(3.8)
응답업체수 (%)	11(100.0)	41(100.0)	52(100.0%)

자료 : 설문조사

불가능하거나 비용이 과다하게 소비될 때 공장을 이동하게 됨(Guido, O., Walter, S., 1983, "Industrial Mobility in Turin Metropolitan Area 1971~1977", Urban Studies, Vol. 20, pp.59-71.

부품 및 원자재 구입지역은 다소 차이가 있다. 본사분리기업의 경우가 서울에서 구입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본사분리기업의 경우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3) 판매연계

제품판매지역도 부품 및 원자재 구입지역과 마찬가지로 서울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서울 이외에 경기·인천 지역으로의 판매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본사분리기업과 본사비분리기업의 경우 제품판매지역은 뚜렷한 차이는 없지만 본사분리기업의 경우 서울에 판매하는 비율이 본사비분리기업보다 조금 높았다.

4) 정보 및 기술서비스연계

응답업체의 80% 이상이 서울에서 중요한 정보를 획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화성군에서 획득하는 비율은 상당히 낮았다. 제품생산에 필요한 기술서비스를 비율을 보였다. 정보와 기술연계에 있어 본사분리기업이 본사비분리기업보다 서울에 의존도가 높게 나타났다.

5) 하청연계

타회사로부터 하청을 받는 경우를 下請企業이라고 하고, 하청기업에 하청을 주는 경우를 下請母企業이라고 한다.

화성군에 입지하고 있는 하청기업들의 경우, 하청으로 사업을 시작한 경우가 약 72%로 나타나 상당히 높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현재는 하청을 하고 있지 않으나 사업시작시에는 하청을 한 기업까지 포함한다면 하청으로 사업을 시작한 기업은 더욱 많을 것이다.

하청기업에게 하청을 주는 하청모기업의 지역적 분포를 보면 화성군내에 있는 경우가 53.6%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다음으로는 수원이 42.9%로 나타나는데 이는 수원이 화성군과 인접하여 있고 화성군에 입지하고 있는 업체중 다수가 수원에서 이전하였기 때문이다. 다음으로는 서울이 35.7%로 나타나는데, 이는 화성군에 입지하고 있는 기업이 서울에 입지하고 있는 기업과 하청관계를 통해 깊은 관련을 맺고 있음을 의미한다.

하청모기업이 하청을 주는 하청기업의 지역적 분포는 하청기업에게 하청을 주는 하청모기업의 지역적 분포와는 차이가 난다. 하청모기업이 하청기업을 화성군에 두는 비율이 15.4%로 상당히 낮게 나타나는데, 이는 화성군에 입지하고 있는 하청모기업이 화성군에 입지하고 있는 업체에 하청을 주는 비율이 낮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반면 서울에 하청기업을 두는 비중은 76.9%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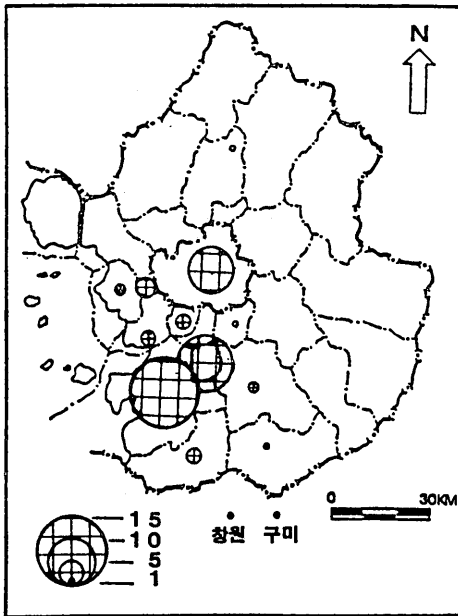


그림 3. (화성군 하청모기업의) 지역적 분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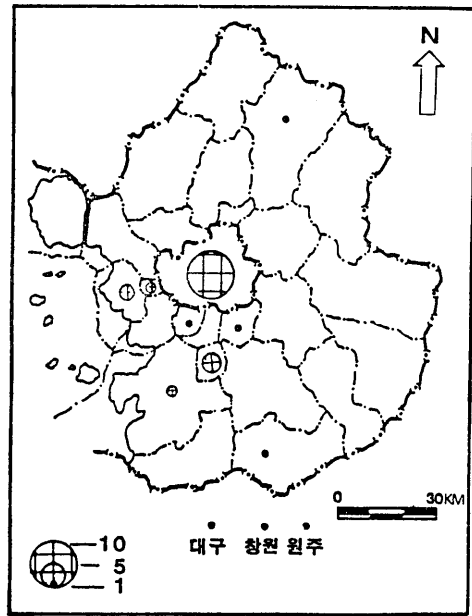


그림 4. (화성군 하청모기업의) 지역적 분포도

상당히 높게 나타나는데 이것으로 보아 화성군의 기업은 서울과 하청을 통해 깊은 연계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청모기업과 하청기업의 지역적 분포를 보면 거의 대부분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 4) 이는 수도권지역 자체에 다양한 업종의 다수의 기업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타시도에 하청을 주고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5) 기술개발활동

1) 연구개발부서

기술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 연구개발부서는 필요하다. 화성군 기업체의 5.4%가 연구개발부서를 갖고 있다. 본사분리기업과 본사비분리기업간에 연구개발부서 유무를 비교해보면 본사분리기업이 본사비분리기업보다 연구개발부서를 두고 있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본사분리기업이 본사비분리기업보다 기업규모가 크고 전문적인 생산을 하기 때문이다.

연구소의 신설·증설·이전 구상이 있는 기업은 설문 응답업체중 23.3%로 나타났다. 연구소를 신설하거나 이전하려는 지역은 서울이 1개, 화성군이 6개, 기타수도권지역이 3개였으며, 그 외지역은 2개였다. 즉 연구소의 신설이나 입지 이전시 수도권지역을 선호하고 있다.

2) 기술개발 및 도입

지난 5년간의 기술개발 및 기술도입중 가장 많이 이루어진 것은 자체 기존제품개발과 기존공정기술개발이었다. 본사분리기업과 본사비분리기업의 기술개발 및 기술도입에 있어 본사비분리기업이 자체제품·개발, 공정기술개발·개발한 비율이 본사분리기업보다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그 차이가 그렇게 크지는 않다.

앞으로 개발하거나 도입할 기술내용은 자체 신제품 개발과 외국의 신제품기술도 입이 높은 응답율을 보였으며, 본사분리기업이 자체 기존제품이나 공정개발에 높은 응답율을 보인 반면 본사비분리기업은 자체 신제품개발과 외국의 신제품기술도입에 높은 응답율을 보였다.

3) 첨단산업의 발달

우리나라에서 수도권지역으로의 첨단산업의 집중은 현저하다. 첨단산업은 수도권내에서 보면 서울시에서 서울시주변의 수도권지역으로 분산되어가는 것이 특징이며, 이는 수도권내 도시지역뿐만 아니라 군지역으로도 분산되어가고 있음이 밝혀졌다.¹³⁾

화성군의 경우 의약품제조업, 음향·영상·통신·신호장비, 전자관 및 기타 전자부품제조업 등의 첨단산업이 발달해 있다.¹⁴⁾ 의약품제조업의 경우 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는 향남면 상신리에 세계 유일의 의약품공업단지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화성군에 입지하고 있는 첨단산업 기업체의 경우 본사는 서울에 두고 공장만을 화성군에 두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화성군이 본래의 의미의 첨단산업이 집적된 지역이라고 할 수 없다. 앞으로 기업 운영단위의 공간적 분리에 의하여 본사를 서울에 둔 첨단산업제품을 생산하는 공장들이 화성군에 많이 입주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에 따라 화성군의 공업화는 더욱 촉진될 것으로 사료된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수도권 남부 비도시지역에 속하며, 최근 급격한 공업성장을 경향하고 있는 華城郡을 대상으로 입지업체의 기업형태, 입지형태, 지역연계, 기술개발 등의 특성을 분석하므로써 화성군의 공업의 특성을 밝혀보고자 하였다.

분석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화성군의 공업은 1970년 이후 계속적으로 급성장하였다. 그 결과 수도권공업에서 화성군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증대하였다. 업종구조 측면에서는 조립금속제품 및 장비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아졌으며, 화학, 석유, 고무 및 프라스틱제조업도 비중이 증가하는 등 중화학공업의 비중이 높아진 반면 섬유, 의류 및 담배제조업이 급격한 비중감소를 보이는 등 경공업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아졌

13) 박삼욱, 1987, “서울대도시권의 첨단기술산업의 발전”, 도시문제, 9월호, pp.8-20.

14) 상계논문

다. 읍·면단위별로는 서울에 인접한 태안읍에 가장 많은 업체가 있었으며, 화성군내에서 공업이 발달한 곳은 교통조건이 양호한 화성군 동편의 읍·면들이었다.

둘째, 화성군의 공업발달은 서울과의 깊은 관련성 속에서 파악될 수 있다. 화성군에 입지하고 있는 기업은 서울에서 이전한 경우가 많았으며, 화성군에 입지한 이유로 서울과의 인접성을 중시하고 있었다. 화성군에 입지하고 있는 기업들은 종업원·원료구입·제품판매·정보및 기술서비스·하청 등 지역적 연계측면에서 서울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었으며, 본사를 서울에 둔 기업의 비율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공간적 분업에 의해 화성군의 공업화가 촉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화성군에 입지하고 있는 기업은 표준화되고 단순한 제품만을 생산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화성군의 업종구조는 기술집약적인 공업의 비중이 높았지만, 실제로 본사나 연구개발부서를 서울에 두는 경우가 높았고 앞으로도 계속

본사를 서울에 두는 경우가 높아질 것으로 보여 화성군은 공업의 意思決定은 서울에서, 生産은 화성군에서 담당하는 二重構造를 보일 것으로 보인다. 즉 화성군에 있어 運營單位의 空間的 分業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화성군을 사례로 하여 분석한 공업의 특성이 수도권내의 다른 남부 비도시지역에서도 어느 정도 비슷하게 나타날 것이다. 물론 각 군마다 서울과의 거리가 차이가 나고 공업발달에 작용한 요인이 다르기 때문에 화성군에서 나타난 위의 결과들이 그대로 다른 남부 비도시지역에서 나타나리라 기대할 수는 없다. 하지만 지역연계단위의 공간적 분업 등에 관한 화성군의 특성이 대체로 타 남부 비도시지역에서도 적용될 것으로 사료된다.

앞으로 수도권 남부 비도시지역에 해당하는 다른 군에 대해서도 연구를 계속하므로써 이 지역의 공업발달과 기업체 특성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이해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The Characteristics of Manufacturing Firms and Industrial Development in Hwasung County

Summary ;

Eun-Gyeong Kim*

The aim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manufacturing firms and industrial development in Hwasung County. The county is one of southern county region of Seoul Metropolitan Area which has been industrialized rapidly since mid-1970s.

The data were obtained from interviews and questionnaire surveys conducted for manufacturing firms in Hwasung County.

The results of the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

Firstly, the industry of Hwasung County has been developed continually since mid-1970s. The proportion of the heavy chemical industry has been increased. Major industrial areas are Taean-Eup, Osan-Eup, Bongdam-Myeon, Dongtan-Myeon, which have good access to transportation routes.

Secondly, the industrial development of Hwasung County is related to Seoul. The most

important factor in location decision is closeness to Seoul. The manufacturing firms are linked to those in Seoul in terms of employees, the purchase of raw materials, sales of goods, information and technical service, subcontracting and so forth. The number of firms, whose headquarters are in Seoul, are increased. The industrialization of Hwasung County has been promoted by spatial division of Labor.

Thirdly, majority of firms produce standardized products. The industrial structure indicates the dominance of technology-intensive sector. Headquarter and R&D functions of firms are located in Seoul. Major decision are made in Seoul while production activities are done in Hwasung. The industrial structure of Hwasung County shows a 'dual structure'. The spatial division of labor in operating units of firms will become much more striking.

Journal of Geography, Vol. 15, 1988.12, pp.

* Graduate School, Department of Geography, Seoul National University